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시민행복 도시 구축할 것”

2025 목포시 현황·주요 역점 사업

#현황

- 인구수 21만261명
- 예 산 9844억원
- 직원수 1374명

#역점사업

- 해상풍력·친환경선박·수산식품신성장산업 육성
-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마련
- 지역상품권 발행·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 자원순환도시 구현 지역균형 개발
- 목포역 대개조 지역 도시 활력 회복
- 목포·신안 통합 및 의대유치 총력



2025 새해설계

박홍률 목포시장

1760억원 규모 여객선 정부 연구개발 지역소멸 대응 목포-신안 통합 속도 식품수출단지 조성 수산업 경쟁력 제고 ‘맛의 수도’ 지역 경쟁력 강화 역량 집중

박홍률 목포시장이 “2025년에는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고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시민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을사년 새해 포부를 밝혔다.

박 시장은 올해 해상풍력산업·친환경선박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산업을 발전시키고 친환경선박 기술개발과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기술개발을 위한 1760억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항 친환경선박 교육연구지구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단지로 조성되며 중소형 선박 수리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도 가속화될 예정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대응하고자 목포와 신안 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미래 인재 양성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계획이다.

교육발전 특구 시범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와 청년창업 인큐베이션 플랫폼 구축을 통해 청년의 역량을 키우고 취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홍률 목포시장.

아울러 목포의 수산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포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은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수출주도형 김산업육성을 위해 국제 마른김 거래소 개장, 해수취수시설 3호기 신설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새로운 지역 특화산업으로 어묵산업을 육성해 목포의 수산업 경쟁력을 높여 전국 제1위 수산식품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포부

도 밝혔다.

유달산 서면 유원지 조성, 북항노을공원 명소화사업, 남항재개발, 목포대교 야간경관 사업,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으로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을 위해 소규모 향만재생사업, 고하도 바다낚시 공원,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사업들을 단계별로 추진해 1000만명 관광객 시대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목포형 문화도시사업에 지속 추진해 나가고 향토음식진흥센터, 기독교 근대역사관, 나전칠기 열린 수장고 등 새로운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기울인다.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국제수목비엔날레,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목포무직플레이 등 대규모 메가 이벤트를 차질없이 준비하며 이를 통해 맛의 수도 목포, 활기찬 스포츠도시, 글로벌 관광도시 이미지를 확립해 대외적인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모두가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후변화 대응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어르신 건강지원, 치매 예방, 공공의료시설 확충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또 지역의 오랜 숙원인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목포 건립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내년에도 초심불망(初心不忘)의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청년이 찾는 큰 목포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선 8기 계획들을 독심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 휴일긴급돌봄 어린이집 이용시간 연장

1일 최대 5시간까지

목포시가 올해부터 휴일긴급돌봄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을 1일 최대 3시간에서 최대 5시간으로 연장 운영한다.

1일 목포시에 따르면 휴일긴급돌봄 어린이집은 양육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긴급

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지난해 7월부터 북항동 소재 다윗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휴일긴급돌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란 휴일·주말에 응급진료나 경조사 또는 근무 등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가

다. 여행이나 유희 등 사유로는 이용이 제한된다. 목포시에 거주하는 6개월 이상의 취학 전 영유아는 어린이집 이용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용 방법은 어린이집에 전화 또는 현장 방문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의 통합 신청서 교육부 제출

국립목포대학교는 지난달 31일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대학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청서는 양 대학이 지난 11월 15일 대학 통합 및 통합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합의한 이후 ‘공동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와 준비 과정을 통해 공동으로 마련됐다.

양 대학은 지난달 26일부터 대학통합 신청서에 대해 대학통합 공동추진위원회의 심의 및 대학별 내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 교육부에 최종 제출했다.

대학통합 신청서에는 양 대학의 통합 목적과 기대효과 등 통합대학에 대한 비

전이 담겼다.

각 지역의 강점과 학문적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현 목표를 설정했다.

양 대학은 글로컬대학 간 통합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학생과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을 담았다.

특히 양 대학은 대학통합에 기반해 의과대학을 설립하여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의생명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형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등 연구와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잡겠다는 의지

를 강조했다.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은 “대학통합 신청서는 전남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의과대학 신설이라는 전남 도민의 염원을 담은 결과물”이라며 “의과대학 정원 확보와 통합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을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해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과대학 신설이라는 대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양 대학의 통합을 지지해주시는 학내 구성원, 동문, 지역사회 등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 드림스타트, ‘드림 북파티’ 개최

북토크·마술치료 등

목포시 드림스타트가 최근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에서 기초학습 참여 아동과 양육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림(Dream)북파티를 개최했다.

1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1년

동안 드림스타트 기초학습에 참여한 아동들을 격려하고 양육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아동들은 동시쓰기 특강에 대한 피드백과 북토크를 통해 그동안 과정을 마무리했다. 식전 행사로는 테너 유기수 성악가의 특별출연과 원민우 원장의 심리

치료를 접목한 마술치료가 더해져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드림스타트 기초학습은 20여명의 아동들이 주 3회 프로그램실에서 한글깨치기와 기초학습을 받았다.

목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 동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이 후원자에게 감사 서한문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 협의체를 통해 후원금 총 3800여만원이 기부됐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745세대에 지원됐다.

목포시 제공

목포동명지역사회보장협의체, 후원 감사서한문 전달

목포시 동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최근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한문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1일 목포시에 따르면 감사 서한문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소중한 후원금(품)이 동명동 내 저소득 및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의 새해 인사도 함께 전했다.

동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년 다

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올해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후원자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성철 민간위원장은 “후원자의 마음이 담긴 기부가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동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후원금(품)은 총 3800여만원이 기부됐으며 저소득층 및 복지 사각지대 등 1745세대에게 지원됐다.

목포=정기찬 기자